

최근에 이루어진 고전산문 분야의 문헌학적 성과들에 대하여

이복규*

차 례

I. 머리말	VI. <홍길동전> 최초 국문소설설의 문헌적 근거 재검토
II. 동명신화와 주몽신화의 관계	VII. 조선후기 소설 낭독 현장에서 살인을 야기한 작품의 정체
III. <설공전전> 국문본 출현의 의의	VIII. 맺음말
IV. <주생전> 국문본 출현의 의의	
V. <왕시봉전>·<왕시봉기우기>와 중국회 곡 <형차기>의 관계	

I. 머리말

국문학 연구에서 문헌학적 접근은 모든 연구의 기초를 이룬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선배 학자들의 적절한 계몽과 실증¹⁾이 있기에 두말이 부질없다.

* 서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류탁일, 『한국문헌학연구』(서울: 아세아문화사, 1989), 정규복, 『한국고전문학의 원전비평』(서울: 새문사, 1990), 최강현, 『한국문학의 고증적 연구』(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이 글에서는 고전산문 분야에서, 문헌학적 연구를 통해 새로 드러난 사실 몇 가지를 한데 모아 살펴보고자 한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성과 중에서 필자의 논문과 관련이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그 내용을 소개·평가하면서 더러 문제제기도 곁들이기로 한다.

Ⅱ. 동명신화와 주몽신화의 관계

그 동안 국문학과 국사학계에서는 오직 고구려건국신화의 존재만을 인정하고 부여건국신화는 없는 것으로 여겨왔던 것이 사실이다. 교과서를 보면 그 점이 잘 드러나 있다. 하지만 부여도 고조선, 고구려, 신라, 가락, 탐라 등과 함께 엄연히 고대국가로 존재했는데, 부여에만 건국신화가 없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고구려건국신화인 <주몽신화>의 각편 정도로 대접받고 있는 기록 중에 부여건국신화인 <동명신화>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최근의 저서²⁾에서 밝혀졌다.

논자는 부여건국신화인 <동명신화>와 고구려건국신화인 <주몽신화>는 비슷하면서도 화소(話素)면에서 몇 가지 분명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 동일시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하였다. 논자는 이 점을 부각하기 위해, 원전의 내용을 요약해 제시하였는데, 화소별로 도표화한 것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부여건국신화	고구려건국신화
주인공 이름	東明	朱蒙
출생지	北夷의 나라(稷離, 粟離, 素離)	夫餘
어머니	王의 侍婢	河伯의 딸
임태 원인	하늘에서 내려온 氣	햇빛
탄생 양상	胎生	卵生
망명 동기	왕의 살해 의도	신하, 태자의 살해 의도
세운 나라	夫餘	高句麗

2) 이복규, 『부여·고구려 건국신화 연구』(서울: 집문당, 1998)

논자가 제시한 이 도표에 따르면, 두 신화의 내용은 뚜렷한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신화의 주인공 이름부터가 다르다. 부여건국신화 기록에서는 동명(東明)으로, 고구려건국신화 기록에서는 주몽(朱蒙)으로 일관되게 표기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주인공들이 세운 나라의 이름도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동명(東明)이 세운 나라는 부여(夫餘)로, 주몽(朱蒙)이 세운 나라는 고구려(高句麗)로 밝혀져 있다.

건국신화를 “국가 창건의 군주에 관한 신화”라고 하는 일반적인 개념 규정 에 따르면, 건국신화는 특정 인물이 특정 국가를 창건한 내력을 기술한 이야기 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국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군주와 국가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건국신화를 언급할 때면 반드시 해당 국가명이나 군주의 명칭을 반영하여 특정 건국신화를 거론한다. 예컨대 고조선 을 창건한 내력을 담은 신화에 대해서는 <고조선건국신화>라고 하거나 <단군신화>라고 명명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 신화의 내용에 단군이란 인물이 고조선이란 나라를 창건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논자의 이같은 주장은 철저하게 문헌 기록의 실상을 존중하면서 나온 것이다. 문면에서 드러나는 차이점을 간과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부여건국신화인 동명신화가 선행하였고, 이를 계승하여 발전시킨 것이 고구려신화인 주몽신화라는 사실을 드러낸 이 성과는 문헌학적 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하겠다.

Ⅲ. <설공찬전> 국문본 출현의 의의

그 동안 학계의 통설은 <홍길동전> 이전에는 국문소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홍길동전>을 최초의 국문소설로 규정하고 있는 데 그같은 인식이 잘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이 통설은,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홍길동전>이 나오기까지 무려 170여년간의 공백을 시인하는 것이어서, 연구자들의 의문을 제기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홍길동전> 이전의 국문소설을 찾아보려는 노력은 이래서 시작되었다. 그

선편을 잡은 학자에 의해서, <홍길동전> 이전의 국문소설이라 하여 찾아낸 성파³⁾가 국문불서(國文佛書) 중의 작품들이다. 『석보상절』이나 『월인석보』 등에 포함되어 있는 <안락국태자전>·<목련전>·<선우태자전>·<금우태자전>·<금광공주전>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불경의 언해이지 소설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라 소설로 공인받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다른 학자에 의해서 주장⁴⁾된 <왕랑반혼전> 국문본도, 1990년대에 이르러, 그 한문본의 원전 최고본인 ‘고려본’(『佛說阿彌陀經』 소재)이 확인됨으로써, 국문소설이 아닌 한문이야기 또는 설화 수준의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⁵⁾

하지만 최근에 발견된 <설공찬전> 국문본⁶⁾은 원본 자체가 소설인 것이 명백하며 작자와 시대도 분명하므로 그 가치와 증거력이 절대적이다. 국문본 <설공찬전>은 ‘국문으로 표기된 최초의 소설’ 또는 ‘넓은 의미의 국문소설의 효시’ 즉 ‘번역체 국문소설의 효시’로서 그 이후의 본격적인 국문소설 즉 ‘좁은 의미의 국문소설’을 등장하게 하는 길잡이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최초의 국문소설을 허균의 <홍길동전>으로 보아온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하지만 과연 허균이 <홍길동전>을 창작했는가, 창작했다 하더라도 그 원본이 국문이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⁷⁾ 더욱이 현전하는 <홍길동전> 판본 중에서 가장 오랜 것으로 보이는 경판본은 여러 가지 면에서 19세기 후반에 나온 것이고 그 내용에 허균 이후의 역사적 사실들이 등장해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라⁸⁾ 최초의 국문소설이라고 하는 게 석연치 않다.

3) 사재동, 불교계 국문소설의 연구(대전: 중앙문화사, 1994)
 4) 황폐강, 「나남 보우와 왕랑반혼전」, 『국어국문학』 42·43(서울: 국어국문학회, 1969)(한국서사문학연구,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1972에 재수록)
 5) 정규복, 「왕랑반혼전의 원전과 형성」, 『고소설연구』 2(서울: 한국고소설학회, 1996), 43쪽.
 6) 이복규, 『설공찬전-주석과 관련자료』(서울: 지인사, 1997)
 7) <홍길동전>을 국문소설의 효시작으로 볼 수 없다는 데 대한 가장 본격적인 논의는 조희용, 「국문본 고전소설의 형성 시대」, 『이야기문학 모꼬지』(서울: 박이정, 1995), 50-52쪽에서 이루어졌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8) 김일렬, 『고전소설신론』(서울:새문사, 1991), 147-148쪽 참조.

그렇지만 <설공찬전>은 『조선왕조실록』 중종 6년(1511년)조 기사에 분명히 그 당시에 국문본이 공존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증거가 명확하다. 따라서 <설공찬전> 국문본은 비록 원작은 한문이었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국문으로 번역되어 유통된 것이 확실한 이상, 이 작품은 국문으로 표기된 최초의 소설⁹⁾임이 분명하며 그 이후 국문소설의 창작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설공찬전> 국문본의 선례를 이어 <왕랑반혼전;1565년?)>의 국문본¹⁰⁾, 권필의 <주생전(1593년)> 국문본이 나오는 등 소설을 국문으로 적는 실험·시습이 누적되다가, 마침내 국문 소설 쓰기의 역량이 갖추어져 마침내는 본격적인[좁은 의미의] 국문소설, 이른바 허균의 <홍길동전(1618년?)>, 작자 미상의 <한강현전>¹¹⁾<소생전(蘇生傳,1672년?)>¹²⁾, 김만중의 <사씨남정기(1692년?)>¹³⁾ 등이 창작되기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¹⁴⁾

-
- 9) 이 작품을 처음 소개하면서 ‘국역본소설’ 또는 ‘국역소설’이라 하지 않고 ‘최초의 한글표기 소설’ 또는 ‘최초의 국문본 소설’이라고 한 데 대해서 만론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문제를 비롯해 몇 가지 의문에 대한 해명은 이복규, 『설공찬전 국문본을 둘러싼 몇 가지 의문에 대한 답변』, 『온지논총』 4(서울: 온지학회, 1998)에서 이미 한 바 있다.
- 10) 황폐강, 『나암 보우와 왕랑반혼전』, 한국서사문학연구(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1972), 220쪽.
- 11) 이수봉, 『한강현전 연구』, 『과전 김무주 박사 화갑기념논총』(동간행위원회, 1988), 173-198쪽.
- 12) 장효현, 『전기소설 연구의 성과와 과제』, 『민족문화연구』 28(서울: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23쪽 각주 46번 참조.
- 13) 김만중의 소설에 <구운몽(1687년)>도 있으나 한문원작설과 국문원작설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으므로, 원작이 국문이라는 증거를 갖추고 있는 <사씨남정기>만을 제시한 것이다.
- 14) <설공찬전> 국문본이 발굴·소개된 후 나타난 공식적인 반응 가운데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두 가지 사례만 들면 다음과 같다. 황폐강 교수는 “국문소설이 한문소설을 발판으로 삼아 시작되었다는 논의는 당초 <왕랑반혼전>을 전제로 제기되었던 터이나, 근자 이복규에 의하여 <설공찬전>(국문 언역본)이 발굴되면서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통설인 홍길동전의 최초 국문소설설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였다.(『국어국문학 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학술연구의 동향과 전망』(서울:한국학술단체연합회,1999), 64쪽). 한편 김종철 교수는 “<설공찬전>의 실물이 추가됨으로써 우리 초기 소설사의 실체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셈인데, 특히 번역의 형태이긴 하나 국문 소설의 존재가 <홍길동전> 이전에

IV. 〈주생전〉 국문본 출현의 의의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금오신화>·<기재기이>·<주생전> 등으로 이어지는 전기소설(傳奇小說)은 문인지식층에 의하여 창작되고 수용된 갈래이다.¹⁵⁾ 한문소설로서 시와 대화체를 빈번히 활용하는 등의 문체적 세련성을 지녀 그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권필의 창작으로 알려진 <주생전>도 전기소설의 하나이다. 현재까지 전하는 두 종의 이본은 모두 한문본이었다. 그런데 1997년에 그 국문본이 학계에 소개되었고,¹⁶⁾ 최근에는 김일근 교수에 의해서 또하나의 국문본 <주생전>이 학계에 공개되었다.¹⁷⁾ 특히 전자는 그 필사연대가 17세기 후반임이 밝혀졌다.¹⁸⁾ 1593년에 창작된 것으로 밝혀진 한문소설 <주생전>이 17세기에 이르러 국문으로 번역되어 유통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설공완전>의 국역과 함께 <주생전>도 국문으로 번역되어 유통되었다는 사실은 소설사적인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상층의 전유물이었던 전기(傳奇)가 17세기에 이르러 국문담당층에게까지 개방되어 읽혔음을 증거한다. 이에 대해서는 정출현 교수의 다음과 같은 진술이 인상적이다.

우리에게 보다 흥미를 끄는 점은 「주생전」과 같은 전기소설이 17세기에 이미 국문으로 번역되어 읽히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무척 흥미로운 소설사적 사건이다. 전기소설은 상층지식인의 문예물이자 이들 소수를 대상으로 창작·유통되던 소설 양식이었지만, 17세기에 이르면 그런 폐쇄적인 국면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필사자가 누구이든간에, 전기소설은 이제 드넓은 국문담당층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기

존재했음을 실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점이 중요하다.”고 하였다(『소설문학의 연구동향』, 『국문학연구 1998』(태학사, 1998), 346쪽)

15) 김대현, 『조선시대 소설사 연구』(서울: 국학자료원, 1996), 36쪽.

16) 이복규, 『초기 국문·국문본소설』(서울: 박이정, 1998)

17) 김일근, 「주생전과 위경전 언해의 합철본 출현에 따른 문제점」, 『제43회 전국국어국문학 학술대회 발표논문집』(서울: 국어국문학회, 2000), 115~117쪽.

18) 이복규, 「설공완전·주생전 국문본 등 새로 발굴한 5종의 국문표기소설 연구」, 『고소설연구』 6(서울: 한국고소설학회, 1998), 41~62쪽.

시작했던 것이다.¹⁹⁾

최근에 김일근 교수가 공개한 <주생전> 국문본은 이 사실을 더욱 확고하게 드러내고 있어 주목된다. <주생전> 국문본은 전기소설의 하나인 <위경천전>의 국문본과 합철되어 있는데, 거기 찍힌 인기(印記)가 후궁의 것이기 때문이다.²⁰⁾ 이는 문인지식층 다시 말해 사대부 남성만을 담당층으로 하여 창작되고 유통되던 전기소설이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서는 국문으로 번역되면서 그 담당층이 여타의 계층(여성층)으로까지 확대되었음을 물증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문헌학적인 발굴·연구 성과가 소설사를 이해하고 서술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구실을 하는가 일깨워 주는 또 하나의 쾌거라 하겠다.

V. <왕시봉전>·<왕시봉기우기(王十朋奇遇記)>와 중국회곡 <형차기>의 관계

<왕시봉전>은 <설공찬전> 국문본, <주생전> 국문본 등과 함께 『목제일기』에서 발견하여 학계에 소개된 국문본 소설이다.²¹⁾ 처음 소개할 때 발굴자는 창작소설로 추정하였다. 창작소설로 본 이유는 국내의 소설목록인 중국의 소설목록에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후 박재연 교수에 의하여 창작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 중국의 회곡 <형차기(荊釵記)>를 축약·번역한 작품²²⁾임이 규명된 것이다. 박재연 교수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 사실을 조심스럽게 추정하였다. 고 정병욱 교수가 발굴해 소개한 적이 있는 17세기 전반의 『신독재수택본전기집』에 실린 전기소설 중의 하나인 <王十朋奇遇記> 역시 그 표제로 보아 <형차기>를 번역한 작품이 아닐까 추측하였던 것이다.

19) 정출현, 고전소설사의 구도와 시작(서울:소명출판, 1999), 183쪽.

20) 김일근 교수에 의하면, 거기 찍힌 인기(印記)는 “椒掖寶章”으로서, 이는 후궁 전용의 것이라 한다. 위의 글, 116쪽.

21) 이복규, 앞의 책.

22) 박재연, 『왕시봉전·荊釵記』(아산: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1999)

박재연 교수의 추정을 실증하는 작업이 정병욱 교수의 자제인 정학성 교수에 의해서 최근에 이루어졌다. 정학성 교수는 원작인 <형차기>, 한문본 <왕시봉기우기>, 국문본 <왕시봉전>을 상세하게 비교한 후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왕시봉기우기>는 현재 회곡으로 전하는 <형차기>를 원전으로 하여 그 내용을 일정하게 축약하고 변개시켜 이를 소설로 개작한 작품이다. 그러나 세부 정황에 있어서 스토리의 단순한 축약을 넘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며 적극적 개작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략) 이런 양상은 원작 <형차기>의 내용을 축약하되 사건 전개와 세부 정황까지 이를 비교적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한글본 <왕시봉전>과 대조가 되는 점이다. 즉 <왕시봉전>이 소설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을 제외한다면 원작의 축약 번역에 가까운 데 비해 <왕시봉기우기>²³⁾는 원작 <형차기> 및 한글본 <왕시봉전>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는 독특한 개성적 면모를 지닌 개작본”이다.²⁴⁾

박재연 교수와 정학성 교수의 연구 성과에서 발견되는 미묘한 차이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박재연 교수는 <왕시봉전>이나 <왕시봉기우기>가 ‘번역’임을, 정학성 교수는 ‘개작’임을 각각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정학성 교수는 한글본 <왕시봉기우기>만 ‘개작’으로 인정하고, 국문본 <왕시봉전>은 ‘번역’이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생각이 다르다. 국문본 <왕시봉전>이나 한글본 <왕시봉기우기>는 둘 다 개작이라고 보아야 옳다. 원작인 <형차기>는 완전한 회곡이다. 하지만 <왕시봉전>이나 <왕시봉기우기>는 완전한 소설 형식으로 전환되어 있다. 필자가 보기에 회곡을 소설로 바꾸었다는 점에서 <왕시봉전>과 <왕시봉기우기>는 둘 다 개작이다. 한마디로 <형차기>는 회곡의 문법에 맞도록 회곡의 용어와 관습에 따라 스토리가 구현되어 있고, <왕시봉전>은 철저하게 전기소설의 형식을 빌어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 점에서 <왕시봉전>과 <왕시봉기우기>는 동일하다. <왕시봉전>과 <왕시봉기우기> 상호간에 존재하는 상대적인 차이를 따지는

23) ‘왕시봉기우기’로 읽을 수도 있으나, 정학성 교수가 몇 가지 이유에서 사재동 교수의 충고를 받아들여, <왕시봉기우기>로 읽기로 한 것에 필자도 동의하여 이렇게 읽는다(정학성, 앞의 글, 각주2번 참조).

24) 정학성, 『왕시봉기우기에 대한 고찰』, 『고소설연구』 8(서울: 한국고소설학회, 1999), 177쪽.

것은 그 다음 단계의 일이다. 같은 개작이되 <왕시봉기우기>가 <왕시봉전>에 비해 더욱 적극적인 개작을 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방하나, <왕시봉기우기>만 개작이고 <왕시봉전>은 개작이라고 할 수 없고 충실한 축약 번역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실상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왕시봉기우기>가 <형차기>의 개작이라는 사실은 이미 정확성 교수가 논증했으므로, 여기에서는 <형차기>와 <왕시봉전>의 차이, 즉 회곡과 소설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임으로써 <왕시봉전>도 개작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형차기>와 <왕시봉전>의 갈래상, 내용상의 전반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따로 논문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왕시봉전> 및 <왕시봉기우기>와 연결되는 이본으로 밝혀진 六十種曲本(일명 '暖紅室刊本' <荊釵記>²⁵⁾의 서두(제1칙과 제2칙의 일부)를 번역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²⁶⁾

제1칙(第一齣) 가문(家門)

[臨江艦] [해설자인 末이 무대에 올라온다] 이것은 한 토막의 신기하고도 참된 고사라네. 모퉁지기 양극(兩極)으로 하여금 이름이 나게 하여야 하네. 삼천(三千)이 예나 이제나 뱃속에 남아 있네. 말을 열기만 하면 사방의 좌석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며, 다섯 가지의 영신(靈神)을 움직인다네. 육부(六府)를 가지런하게 할 만한 재주에 조식의 칠보시를 아우를 만한 하네. 팔방으로 펼쳐지는 호기가 구름을 능가할 만큼 높으며, 노래를 부르면 높은 하늘의 구름이 멈추었네. 온전히 모인 자들이 모두 다 인의예(仁義禮)를 먼저 행한 사람들이었네.[問答照常]

[沁園春] 재자 왕생과 가인 전씨는 현명하고 효성스러우며 온화하고 선량하였네. 가시나무비너로 장가들어 짝을 맺어 부부가 되었다네. 봄에 치르는 과거 시험을 재촉하여, 난봉(鸞鳳)들을 쫓겨어 흩어지게 하였네. 홀로 달에 거닐어, 높다랗게 선계의 월계관을 휘어잡았네. 한번에 장원급제하여 이름이 향기로부터다. 재상으로 인해서, 사위 되어 달라는 초청을 따르지 않아, 조양 땅으로 인사조치되었네. 편지를 닦아서 멀리 어머니께 알렸는데, 중도에 간교한 피 때문에 재앙의 내용으로 변하게 되었네. 장모가 노여움을 내서 자기 딸을 핍박해서 개가하게 하였으나, 아내가 수절하여 물레가

25) 원문은 박재연, 앞의 책에 실려 있음.

26) <형차기> 번역은 아직 이루어진 바 없다. 백화문인 테다 회곡용어가 빈번히 출현해서 해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아래의 번역도 초보적인 번역에 불과하나, 소설과 구분되는 회곡으로서의 특징을 엿보는 데는 일조하리라 믿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소개한다.

서 강에 몸을 던졌네. 다행히도 신도(神道)가 바로잡아 붙들어 구원해 주었네. 함께 임지로 부임했다가 만기가 되자 다른 고장으로 가서, 길안(吉安)에서 모였네. 의로운 남편과 절게 있는 아내가 영원히 전해서 드날리게 되었네.

왕 장원은 동상(東牀)에 누워있는 사위에 나아가지 않았고
만사(萬俟) 정승은 고쳐 조양 땅으로 인사조치를 하였다네.
손여권은 편지를 위조하여 돌아왔으며
전옥련이 수절한 형차기일레라.

제2척 회강(會講)

[滿庭芳] [남자주인공인 生이 무대에 올라온다] 청빈 지키기를 좋아하였고, 엄한 교훈을 공격스럽게 이어받았다. 10년 동안 등불과 서로 친근히 하니 가슴 속에는 별과 북두성을 저장하였다. 붓끝이 천군을 지휘할 만하고, 도화 물결이 따뜻한 봄을 만난 것과 같아, 반드시 내가 한번 용문에 뛰어들기로 하였다네. 아버지의 연세가 자꾸 들어, 이불을 따뜻하게 헤드리고, 베개를 시원하게 부채질하면서 분수에 따라서 아침저녁을 보냈다네. [古風] 월남 지역 중의 옛 고을에서는 영가가 자랑스러웠다네. 성지(城池)와 저자거리에는 사람들이 사치하고 화려하며, 멀리 생각하니 다락 앞의 경치가 아주 좋은데, 유람선에서 노래하는 기생들은 얼굴이 꽃같았다네. 가문이 시경과 예기가 가문에 전하여 유가의 자손으로 참여하였네. 아버지께서 불행하게도 일찌감치 돌아가셨네. 어찌해서 가문이 점차 쇠락하였는가?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게 뜻과 같이 되지를 앓았다네. 시키는 모든 사람은 칼을 두드리며 밥상에 생선이 없다고 투정하지만, 부추나물과 소금만을 먹는 생활을 감수하면서도 즐거움이 여유가 있었다네. 어머니가 현숙하여 맹모와 같아, 거듭거듭 아들을 가르쳐서 시서를 읽게 하였다네. 일찍이 소진이 다리를 찌르며 머리털을 천장에 붙들어 매어 공부한 것처럼 노력을 하였으며, 불빛을 끌어들이기 위해 광형의 벽을 밤에 뚫었다네. 흉중에도 다섯 수레가 될 만큼 많은 서적을 다 넣었고, 햇바닥 밑에는 뒤집히는 물결이 천 척이나 되었다네. 아 슬프다. 세월이 나를 위해 멈추지 않는 교야. 아버지의 나이가 늙어가니까,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걱정이네. 맛있는 음식이 어찌해서 봉양에 없을 수가 있겠는가. 공명(功名)은 하물며 뜻을 보답하지 못하게 됨에라. 한번 용문을 뛰어올라 욕구한 바를 따랐고, 삼베옷을 연꽃옷으로 바꾸어 입었다네. 궁궐에서 질을 하고 춤을 추며 임금의 은혜를 입었으며, 관리해 취하여 온 가족이 천자의 봉급을 먹게 되었다네. 소생의 성은 왕이고 이름은 시봉, 자는 구령이라네. 온주에 있는 성에서 거주하고, 불행히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오직 모친의 훈육에 힘입어 성인이 되었다네. 집에는 양식이 없고, 외람되게도 학교의 수에 열명(列名)하게 되었다네. 학문에 연련은 있었으나, 역 잘방 정도의 영화도 없는 것이 부끄러웠다네. 내일에 과거시험이 있는데, 다른 날의 정기 과거

는 어찌될는지 알 수가 없다네. 이것은 하늘이 부여한 바이며, 사람의 뜻만 가지고 합격을 기약할 수가 없는 것이라네. 지난날에 일찍이 친구들과 서로 약속하여 강학하여 경사(經史)를 밝히기로 했기에,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네.

[水底魚] [남자배역이 무대에 올라온다] 가난한 서생이 가슴속은 욕정에 취하고, 교룡같이 날고 봉황같이 일어나는데, 과거에 올라 상경이 되는 데 관심을 가졌다네. 나는 학생 왕사평(王師平)이라오. 내일의 부존당시(府尊堂試) 때 문에, 이미 친구들과 회강(會講)하기로 약속하여, 매계의 집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기에 이리저리 찾아오는 것이라오. 여기가 바로 그 집이군. 매계 있는가? [生] 사명(四明), 들어오게나. [末] 그러지. [生] 반주(半州)는 어찌서 오지 않지? [末] 뒤따라 올 거야.

위에 소개한 바와 같이, <형차기>의 서두를 보면, 제1척에서 남자배역의 하나인 末이 무대 위에 올라와 작품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소개한다. 모두가 시로 되어 있다. 이어서 제2척에서는 주인공과 그 친구들이 만나 과거시험 준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소설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다. 각 장면이 ‘척’이라는 단위로 분절되어 있는 점, 각종의 배역이 등장해 ‘臨江僊’·‘沁園春’ 등 일정한 악조에 따라서 노래하거나 말을 하면서 스토리가 전개되는 점도 얼른 눈에 띄는 특징이다. 소설 <왕시봉전>의 서두²⁷⁾를 보면 장회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서술자의 서술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양상은 다른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서두만 비교해 보아도 국문본 <왕시봉전>은 그 형식 면에서 원작 <형차기>를 소설의 관습에 맞추어 소설답게 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²⁸⁾

어쨌든 그다지 길지 않은 기간에 거듭 밝혀진 이같은 새로운 사실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흥미롭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규명된 사실들의 소설사적 의미와 문헌연구상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더욱 더 우리의 주목을 끈

27) 온췌 타희 사는 왕시봉이라 홀 소니 양지 2장 단정하고 그롤 2장 잘희되 홀 번 초시도 몰호엇더니 또 전공원이라 홀 소니 상쳐호고 후쳐호야 사더니 전실의 썩 호나희 이소되 일홈은 육년개오 나홀 십오년이오(<왕시봉전> 제1면)

28) 요즘은 소설·영화·연극 등이 수시로 갈래를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누구도 이를 번역이라 하지는 않는다. 개작 또는 재창작이라고 여기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관례 또는 현상과 견주어서 <형차기>와 <왕시봉전>의 관계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판단한다.

다.

먼저 소설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당시 조선의 식자층에게 명대의 중국 회곡[극본]이 널리 읽히고, 이를 저본으로 번역·윤색을 거친 소설 개작본이 유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증”²⁹⁾하게 해준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고소설의 발생이나 발달 과정을 단선적으로 이해하던 그 동안의 시각을 교정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한다. 이때까지 학계에서는 초기 고소설의 형성이나 발달 과정을 설명할 때, <전동신화>로 대표되는 중국의 문언소설과의 관련성만을 고려하는 편향성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의 회곡 <형차기>를 소설로 개작하여 17세기에 분명한 모습으로 유통된 국문본 <왕시봉전>이나 한문본 <왕시봉기우기>의 존재는, 중국의 소설뿐만이 아니라 회곡의 극본도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³⁰⁾

또 하나의 의의는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 고전문학 연구자가 새로운 작품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것의 창작 여부를 가릴 때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문헌이 무엇인지 시사한다는 점이다. 발굴자인 이복규는 <왕시봉전> 국문본을 창작 소설로 추정하는 오류를 범한 바 있다. 그 같은 실수는 소설목록집만 검색한 데서 말미암은 것이었다.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회곡목록집』류의 책을 보았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

『중국회곡목록집』류 가운데에는 우리가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저술들이 있다. 莊一拂이 편찬한 『古典戲曲存目彙考』, 『曲海總目提要』 등의 방대한 목록집이 그것이다. 『古典戲曲存目彙考』 상책을 보면 <王十朋荊釵記>라는 표제하에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중요 부분만 발췌하여 보이기로 한다.

(전략) 柯丹邱著. (중략) 按戲中敘述, 王以荊釵聘錢女玉蓮, 有孫汝權亦欲娶之. 孫富王貧, 玉蓮繼母亦以女嫁汝權, 玉蓮不從, 其父窮從女志. 十朋既娶, 應舉擢壯元. 幸相方侯高欲贅十朋, 十朋亦不從. 時十朋僉判饒州, 高怒其拒婚, 改調潮陽瘴地. 汝權竊改十朋家信, 言已贅方侯, 令妻改嫁. 玉蓮投江自殺, 爲錢安撫拯救, 收以爲女. 十朋迎母至京, 聞妻死訊, 大慟. 母知無此事, 益悲痛, 遂偕往潮陽. 後升任吉安, 錢安撫邀飲舟中, 訊得其實. 始姑媳相見, 夫婦重圓云. (후략)³¹⁾

29) 정학성, 위의 글, 187쪽.

30) 이에 대해서는 박재연, 앞의 책, 7쪽 및 정학성, 위의 글, 188쪽 참조.

이 희곡목록집을 보았다면, 표제에 ‘王十朋’이란 남주인공의 이름이 드러나 있고, ‘荊釵(가시나무비녀)’란 어휘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왕시봉전>의 원작임을 쉽게 알아차렸을 것이다. 더욱이 그 줄거리 소개를 보면 더욱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曲海總目提要』의 경우는 줄거리 대신 남주인공의 이름만을 노출시켜 놓았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를 더 쉽게 규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복규는 오로지 소설목록집만 검색한 상태에서, ‘왕시봉’이 나오지 않자 <왕시봉전>을 창작소설이라 추정하고 말았던 것이다. 앞으로 이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산문목록집만이 아니라 위에 소개한 희곡목록집들도 검색해야 하리란 것을 거듭 강조해 둔다.

Ⅵ. <홍길동전> 최초 국문소설설의 문헌적 근거 재검토

국문소설이란 일반적으로 창작 당시에 한글로 표기한 소설을 가리킨다. <설공찬전> 국문본처럼 한문소설을 국문으로 번역한 것은 ‘국역본소설’ 또는 ‘국문본소설’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국문소설’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창작국문소설만이 좁은 의미의 ‘국문소설’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 나라 최초의 국문소설은 무엇인가? 현행 중고등학교 국사와 문학 교과서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책에서 허균(1569~1618)의 <홍길동전>으로 소개하고 있다.³²⁾ 하지만 고소설 전공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홍길동전>의 문학적 위상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기를 꺼리고 있다.³³⁾

31) 莊一拂 編, 『古典戲曲存目彙考』(상해고적출판사), 권1, 5~6쪽.

32) 국사편찬위원회 1중도서연구개발위원회, 『고등학교 국사(하)』(서울: 교육부, 1996), 61쪽; 최동호·신재기·고형진·장장식, 『고등학교 문학(상)』(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5), 290쪽에서 “최초의 한글 소설”, “최초의 국문 소설”로 각각 기술하고 있다.

33) 예컨대 최근에 나온 최운식, 『한국 고소설 연구』(서울: 보고사, 1997), 169쪽에서 <홍길동전>을 소개하면서, “홍길동전은 국문본이 널리 읽혔으나 원본이 국문본이었던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한 것이라든가, 조희웅, 「17세기 국문 고전소설의 형성에 대하여」, 『어문학논총』 16(서울: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97), 19쪽에서 “현전 자료로 본다면 홍길동전이나 구운몽은 오히려 선한문본설이 타당할

전공자와 일반인의 인식이 괴리를 보이고 있다 하겠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홍길동전> 최초 국문소설설이 통설로 자리잡게 되었을까? 그 문헌적인 문헌적인 근거는 무엇이며 타당성은 있는 것인가? 이복규는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 재검토하는 글을 쓴 적이 있는바, 이하의 내용이 그것이다.³⁴⁾

<홍길동전>의 작자가 허균이라는 증언은 택당 이식(1584~1647)의 『택당집』에 처음 나온다. “(許)筠又作洪吉同傳, 以擬水滸”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 기록은 허균이 <홍길동전>을 창작했다는 사실만 증거하였을 뿐, 그게 국문소설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한문기록의 관습상 국문소설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앞에 ‘諺釋’·‘傳奇’·‘諺錄傳奇’·‘古談’·‘諺書古談’·‘諺課稗說’ 등의 관형어가 없이는 법인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허균이 지었다는 <홍길동전>은 한문소설로 보아야 마땅하다.³⁵⁾ 만약 기록이 이런데도 <홍길동전>을 국문소설로 보아야 한다면, 채수가 지은 <설공찬전>도 국문소설로 보아야 한다. 『조선왕조실록』에 “蔡壽作薛公瓚傳”(중종 6년 9월 2일 및 같은 달 20일)·“其撰薛公瓚傳”(같은 해 9월 18일)이라고 하였고, 『패관잡기』에 “蔡懶齋滸, 中廟初, 作薛公瓚還魂傳” 등으로 기록하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설공찬전>은 한문소설임이 명백하다. 국문으로도 번역되어 경향 각지에서

것 같기도 하다.”고 한 데에서 고소설 학계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34) 이복규, 「최초의 국문소설은 무엇인가」, 『새국어교육』 56(서울: 한국국어교육학회, 1998)

35) 허균의 <홍길동전>이 과연 국문소설이었겠는가 하는 의문은 국문학 연구 초기에서부터 있어 왔다. 고정욱, 『국어국문학요강』(서울: 대학출판사, 1949), 405쪽에서, <홍길동전>은 국문본인지 한문본인지 의문이라면서, 첫 국문소설로서 김만중의 <구운몽>·<사씨남정기>를 꼽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 가운데에서 <사씨남정기>이 국문소설이라는 데 대해 이견이 없으나 <구운몽>만은 현재까지도 시비가 이어지고 있다). 정주동, 『홍길동전연구』(대구: 문호사, 1961), 141쪽에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홍길동전>을 한문소설로 추정하였다. 정주동은 <홍길동전>을 한문소설로 보아야 할 이유 중의 하나로, 국문소설의 경우 일정한 관형어를 붙여 소개한 문헌상의 사례들을 여럿 인용해 보여 이 방면 연구에 소중한 기여하였다. 어떤 학자는 소설로도 인정하지 않고 실존인물 홍길동의 행적을 적은 傳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허균의 <홍길동전>이 소설인 것만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복규, 「홍길동전 작자논의의 연구사적 검토」, 『한국고소설의 재조명』(서울: 아세아문화사, 1996), 314~315쪽 참조.

읽었다는 말이 바로 그 뒤에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려니와, 서상에 지적한 것처럼 한문기록물의 경우에는 아무런 관형어도 붙이지 않는 관행을 고려할 때 당연한 사실이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밝혀두어야 할 게 있다. 현전하는 <홍길동전>은 하나같이 19세기 중엽(1850년대) 이후에 필사하였거나 인쇄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허균 사후 무려 230년이 지난 후의 것들만 발견되고, 표기법도 완전한 分綴, ㅎ중성어의 잔존, 구개음화의 흔효 등의 양상을 보여 18세기 중엽 이상으로 소급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³⁶⁾ 더욱이 결정적인 것은, 그 내용 가운데, 허균이 죽은 다음에 활약한 도적 장길산의 이름이 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판본에서 주인공 홍길동이 집을 떠나면서 어머니에게 남긴 말을 보면, 장길산이 운봉산에 들어가 도를 닦아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유전했듯이 자기도 그렇게 하고자 집을 떠난다고 했는데, 장길산은 17세기 말에 群盜의 대장으로 활동한 광대 출신의 실존 인물이니, 허균의 시대로부터 근 한 세기나 지난 뒤에 활동한 인물이다.³⁷⁾

이상의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현전 <홍길동전>은 허균이 한문으로 창작한 <홍길동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200여년 후에 누군가가 국문으로 재창작한 것임을 시사한다. 요컨대 현전 <홍길동전>은 허균이 처음에 지었으면서 현재는 전하지 않는 한문소설 <홍길동전>과는 구별해서 이해해야 마땅하다. 현전 <홍길동전>이 국문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제목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허균 원작도 국문소설이었으리라 간주해서는 안된다.³⁸⁾

사실이 이러하데 어찌서 그 동안 <홍길동전>은 최초의 국문소설로 알려져 왔던 것일까? 이복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이명선의 저서에서 처음 확인된다. 그 내용을 인용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36) 어학적인 분석은 최범훈, 『홍길동전의 어학적 분석』, 『허균의 문학과 혁신사상』(서울: 새문사, 1981), 41~49쪽에서 이루어졌다.

37) 임형택, 『홍길동전의 신고찰(상)』, 『창작과비평』 42(서울: 창작과비평사, 1976), 70쪽.

38) 최근에 나온 이윤석, 『홍길동전 연구』(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7)에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가장 적극적인 주장을 펼쳤다. 현전 <홍길동전>은 허균이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각종 이본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검토를 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이조에 들어와서 세조 때의 金時習(1435~?)의 金鰲新話를 소설의 효시로 삼는 것이 통설이다. 이것은 물론 漢文小說이며, ……光海朝에 이르러 許筠(1569~1618)의 洪吉童傳이 나와, 이것이 朝鮮말로 된 最初의 小說이라고 한다.³⁹⁾

이를 보면, 1948년 당시 이미 <홍길동전>을 최초의 국문소설로 보는 인식이 학계에 퍼져 있었고, 이명선은 이를 저서에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흔히들 <홍길동전>을 최초의 국문소설로 규정한 학자가 김태준인 것으로 알아 그렇게 기술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 김태준의 저술에서 그런 대목은 나타나 있지 않거 때문이다. 김태준의 <홍길동전> 관련 진술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洪吉童傳은 허균과 같이 박식한 사람의 손에 되었음으로 조선 최초의 소설다운 소설이면서도 가장 고전에 의한 부분이 많다.…… 장희소설의 시조가 되었다는 점으로서 朝鮮小說史上에 가장 거벽이라 하겠다.⁴⁰⁾

인용문에서 보는 것처럼, 김태준은 <홍길동전>의 작품성을 들어 이를 “조선 최초의 소설다운 소설” 또는 “章回소설의 始祖”라고 했지, 한문소설인지 국문소설인지 하는 데 대해서는 일체 관심을 보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조운제도 김태준의 뒤를 이어 같은 견해를 보였다. 조운제는 <홍길동전>이 이전 작품이 보여주는 傳奇性 또는 架空의인 성격을 탈피해 사회 현실을 여실히 묘사한 점을 강조한 다음, “조선소설은 여기에 와서 소설다운 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 홍길동전은 또한 조선소설문학의 획기적인 작품임을 의심할 수 없다.”⁴¹⁾고 그 소설사적 의의를 평가하였다. 그런데도 그 동안 대다수의 학자는 김태준이 <홍길동전>을 ‘최초의 소설다운 소설’이

39) 이명선, 『조선문학사』(서울: 조선문학사, 1948), 131쪽.

40) 김태준, 『조선소설사』, 증보판(서울: 학예사, 1939), 86~87쪽. 잘 알려진 대로 김태준의 『조선소설사』는 초판본과 증보판이 있어 약간 차이를 보이는데, 필자가 이용한 것은 증보판이다. 하지만 초판본과 증보판을 자세히 분석한 노꽃분비, 김태준의 조선소설사 연구(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를 따르면, <홍길동전>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는 달라진 게 없음을 알 수 있다.

41) 조운제, 『국문학사』(서울: 동국문화사, 1949), 247-249쪽.

라고 한 평가를 '최초의 국문소설'로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김태준의 진술을 왜곡해 온 셈이다.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홍길동전>을 최초의 국문소설로 규정한 것은 이명선부터이다. 이명선이 학술서에서 <홍길동전>을 최초의 국문소설이라 말한 이후, 정용준·김동욱·장덕순⁴²⁾ 등 다수의 학자가 같은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러니까 이 학설은 1948년 무렵부터 시작하여 1950년대를 거쳐 최근에 이르기까지 정설화하여 각종 저서나 교재류에 수용되었고, 무비판적으로 답습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한다.

VII. 조선후기 소설 낭독 현장에서 살인을 야기한 작품의 정체

조선후기 소설의 유통과 관련하여 『정조실록』에는 충격적인 자료 하나가 실려 있다.

민간에 이런 말이 있다. 종가(鍾街) 담배가게에서 어떤 사람이 궤사(稗史) 읽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영웅이 실의한 대목에 이르러서, 눈을 부릅뜨고 입에 거품을 품고 담배를 썬는 칼을 가지고 바로 그 앞에서 궤사 읽는 사람에게 달려들어 측석에서 죽였다는 것이다(諺有之, 鍾街煙肆, 聽小史稗說, 至英雄失意處, 裂眦噴沫, 提截草劍, 直前擊斃之).⁴³⁾

아마도 소설낭독 현장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것이 유일무이한 자료가 아닌가 한다. 과연 그 작품은 무엇이었을까? 조동일 교수는 이를 영웅소설로 추정⁴⁴⁾하였다. '영웅'이란 말이 자료의 문면에 나와 있기도 하려니와 영

42) 정용준, 『요령 국문학사』(서울: 경기문화사, 1957), 106쪽; 김동욱, 『국문학개설』(서울: 민중서관, 1961), 102쪽; 장덕순, 『한국문학사』(서울: 동화문화사, 1975), 205쪽.

43) 『정조실록』 권31 정조 14년 庚戌 8월 戊午조. 한편 같은 내용의 기사가 李德懋, 『銀愛傳』, 『雅亭遺稿』 3(영인본 『靑莊館全書』 상,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66), 443쪽에도 보인다.

웅소설의 내용이 독자가 분개하고 흥분하도록 영웅의 패배와 실의를 의식적으로 강조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추정이다. 하지만 조동일 교수는 영웅소설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작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관심은 이복규에 의해서 처음으로 표명되었다. <임경업전>이 이덕무의 해당 기록과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한 것이 그것이다.⁴⁵⁾ 필자가 그런 주장을 한 것은 <임경업전>의 이본 가운데에서 사재동 소장 <임경업전> 35장본의 후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진술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오호라 누구도 일리 읊서 임인 남월의 이척열 등서홀제 경업이 즘점의 흉계에 빠져 죽은 더문의 이르러는 엇지 분하고 불상호던지 분얼 이기지 못하여 헛주먹질도 하고 불상호 맘이 청양읍서 눈물러 압힐 가리오니 이 척보다가 살린호여단 말리 올코 그 즘손이 쓰시 읊시미 울토다⁴⁶⁾

이 후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이 척보다가 살린호여단 말”이란 부분이다. 이것이야말로 이덕무가 전한 살인사건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보아, 양자의 연관성에 주목하자고 그랬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더 이상의 실증은 할 수가 없었다.

최근에 그 영웅소설이 <임경업전>임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사실이 밝혀졌다. 심노승(1762~1837)이란 인물이 자신의 생애를 정리한 글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확인된 것이다.⁴⁷⁾

촌에서 소위 <임장군전>이라 하는 언문소설을 덕삼이가 가지고 왔으나 그는 치통 때문에 제대로 낭독하지 못하였다. 내가 이것을 등불 아래에서 보니 사적이 어그러지고 말이 비루하고 잘못되어 통하지 않는 곳이 많았다. 이것은 서울 담배가게와 밥집의 파락악소배(破落惡少輩)들이 낭독하는 언문소설로서 예전에 어떤 이가 이를 돌다가 김자점이 장군에게 없는 죄를 씌워 죽이는 데 이르러 분기가 솟아올라 미친 듯이 담배 썬는 큰 칼을 잡

44)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서울: 지식산업사, 1977), 407~408쪽.

45) 이복규, 『임경업전연구』(서울: 집문당, 1993), 65~66쪽.

46) 이복규, 위의 책, 224쪽에서 재인용.

47) 김영진, 『효전 심노승 문학 연구』(서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29쪽.

고 낭독자를 베면서 “네가 자점이더냐?”라 하니 같이 들던 시장 사람들이 놀라 달아났다. 이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좋아하는 인심을 볼 수 있으니 그가 살아있는 자점을 보았다면 적을 쫓아 나라를 저버리는 일은 하지 않을 자이다(村中得諺書, 所謂林將軍傳, 德三持, 以爲痛齒 聲不堪聞. 燈下, 余輒取覽, 事蹟謬舛, 詞理兩錯, 不成爲說, 此是京裡草市儂肆破落惡少輩所讀諺傳. 昔有一人聽讀此, 至金賊自點構殺將軍, 氣憤憤衝起如狂, 手引切草長刀, 斫讀者曰, 汝是自點耶, 一市駭散, 此可見疾惡好善之人心, 使彼見生自點者, 必不爲從賊負國之事耶).⁴⁸⁾

이 자료의 내용은 앞에서 든 이덕무의 기록과 완전히 일치한다. 더 구체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기까지 하다. 따라서 이 자료의 출현으로 조선후기 종로거리에서 일어난 소설낭독 현장의 살인 사건을 야기한 영웅소설이 <임경업전>일 것이라는 이복규의 추정은 명백한 사실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VIII. 맺음말

이상 최근에 밝혀진 문헌학적 성과들의 내용과 의의를 소개하고 관련된 문체제기도 곁들여 보았다. 머리말에서 밝힌 것처럼 이 글은 새로운 사실을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을 두지 않았다. “한국문학의 문헌학적 연구”라는 특집주제를 의식하여, 필자가 그간 다루었던 작품이나 쟁점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성과들을 한데 모아 재조명해 본 것에 불과하다.

다만 <왕시봉전>과 <형차기>의 관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의견을 처음으로 개진해 보았다. 중국고전회목목록집의 검색 필요성에 대한 의견, 부분적이거나 <형차기>를 번역해 소설과 비교하도록 한 것도 이 글에서 처음 시도한 것이다.

이 글에서 확인한 사실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한다.

첫째, <동명신화>는 부여전국신화이고 <주몽신화>만 고구려전국신화이다.

둘째, <설공찬전> 국문본의 출현은 <홍길동전> 이전 국문소설의 존재를

48) 김영진, 위의 글, 30쪽에서 재인용.

입증한다.

셋째, <주생전> 국문본은 전기소설(傳奇小說) 담당층의 확대 현상을 입증한다.

넷째, 국문본 <왕시봉전>과 한문본 <왕시봉기우기>는 중국회곡 <형차기>를 소설로 개작한 것이다.

다섯째, <홍길동전>을 최초의 국문소설로 보아야 하는 문헌적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여섯째, 조선후기에 소설 낭독현장에서 살인사건을 야기한 영웅소설 작품은 <임경업전>이다.

Abstract

On Recent Bibliographical Achievements Made in the Area of Classical Prose

Yi Bok-Kyu

This study introduces some recent findings made possible by the bibliographical researches in Korean Classical Prose. They are as follows:

First, the myth of *Tongmyǒng* is distinguished from the myth of *Chumong* in that the former belongs to *Puyǒ* mythology while the latter belongs to *Koguryǒ* mythology.

Second, the appearance of the Korean version of *Sǒlgongchanjǒn*(薛公瓚傳) proves the existence of novels in Korean prior to *Honggildongjǒn*(홍길동전).

Third, the Korean version of *Chusangjǒn*(周生傳) proves that the audience of the grotesque novels expanded to the lower class.

Fourth, *Wangsibongjǒn*(왕시봉전) and *Wangsibunggiugi*(王十朋奇遇記) are novels that were revised from the Chinese play *Hyǒngchgi*9荊釵記).

Fifth, the bibliographical evidence that *Honggildongjǒn*(홍길동전) should be seen as the first novel in Korean is not well-founded.

Finally, the heroic novel that caused a murder case in late Chosun Dynasty in the cigar shop where the novel was read in front of the audience was *Imgyǒngǒpjǒn*(임경업전).